

# 또 전쟁연습?



## 한반도에 핵전쟁 위기 부르는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군당국이 또 다시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는 지난 8월 10일 군병력만 8만여명(미군 3만여명, 한국군 5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인 UFG(을지프리덤가디언)를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북핵 빌미삼은 대북 선제 공격연습!

특히, 북핵 대응을 빌미삼아 한미 군당국이 작년에 북에 대한 선제 공격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올 해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그 공격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 군사연습은 한반도에 핵전쟁을 불러올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 UFG(Ulchi Freedom Guardian)란?

- 한반도 전면전 등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매년 8월에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
- 한미 군병력은 물론 중앙 및 지방 정부, 민간까지 참여해 전국에서 실시되며, 총 동원인원이 50만여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합전쟁연습.
- 한미 군당국은 UFG가 연례적 방어연습이라 주장하나, UFG는 한미연합사의 한반도 \*작전계획 5027에 입각해 수행되는 공격적 군사연습.

### \*작전계획 5027은?

-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작전목적으로 한 한반도 전면전 대비계획.
- 평양점령과 북에 대한 점령통치를 상정한 작전계획. 2010년 UFG연습 때는 김정일 위원장 생포 시나리오가 공개된 바 있음.

# 평화로운

## 한반도를 위해서는...

### 한미 군사연습이 평화를 지켜주지는 않아

한미당국은 올 봄, 키리졸브/독수리연습 때 북에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는 B-2, B-52, 평양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F-22 전투기까지 동원하여 대대적인 전쟁연습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해 북도 강력히 대응하면서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이렇듯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강화될수록 위기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핵전쟁까지 상정하는 UFG 등의 전쟁연습은 평화를 가져오기는 커녕 전쟁을 부추길 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나 폐쇄 직전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UFG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 전쟁연습을 멈추고,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아가야!

정전협정 체결 60년.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북의 핵무기 폐기, 미국의 핵무기 제거)를 이루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대북 공격연습인 UFG를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합니다.



### 함께 해 주세요!

- UFG 군사연습을 강행하는 한미연합사에 항의 트윗을 보내주세요. (한미연합사령부 @USFKPAO)
- UFG 군사연습의 문제점을 정리한 웹자보를 널리 알려주세요. (평통사 트위터 @spark946 참고)
- UFG 군사연습에 반대하는 실천에 함께 해주세요.
  - 2013년 8월 15일 2시, 자주통일평화행동 (미대사관 앞\_광화문 2번출구)
  - 2013년 8월 19일 11시, UFG반대 기자회견 (서울은 한미연합사 2번게이트 앞, 지역은 추후 공지)
  - 2013년 8월 19일 ~ 22일, UFG반대 퍼포먼스 및 1인 시위 (11:30~12:30, 미대사관 앞 / 지역은 추후 인터넷 공지)